

동구, 공유주차장 조성으로 '같이의 가치' 알린다

지난해 7월 활성화 목표 조례 제정 인근 종교·민간시설 등 업무협약 주차난 집중 지역에 추가 조성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현 기대

광주 동구가 공유·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최근 '공유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대까지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심 속 교통·주차 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로 특히 대도시의 경우 차량 수 대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법 주차, 주민·민원인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자율이기에 제한이 어렵다.

광주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까지 주민·방문객들에게 일정 시간대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조성,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민원인 주차장과 사설 유료 주차장도 있지만 '같이의 가치'를 알리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차를 막는 데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7월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공유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 비용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 '주차가 편한 동구' 조성이 목표다. 이후 올해 5월 광주서석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컬쳐호텔 랍(한국종합예술학교)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2년간 개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는 보상금,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

이로써 현재 관내 공유주차장은 3개소(258면), 공영주차장은 112개소

(3,780면)이다. 추가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주차난 집중 지역'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 중이다.

대상지는 △충장로4가(충장동공영주차장 일원) △동명문화마을(동명교회부지) △친환경자원순환센터(산수동 일원) △두암타운 사거리 인근 등 4개소(77면)이다. 2025년 완공·개방을 목표로 각 대상지별 필지 매입,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기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의무 설치 기준도 강화된 데다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범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공영주차장 내 4개소가 설

치돼 있다.

다만,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와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각 지자체마다 학교와 민간 시설까지 개방하면서 공유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동구 곳곳에 명소가 많아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주차장 참여 기관 모집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공영주차장도 확대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2024 관광두레 상품' 본격화 남구, 주민사업체 4곳 선정

광주 남구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사업체 4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지역 색깔을 입힌 브랜드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특색을 지닌 관광상품을 발굴해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관내 주민사업체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인 승촌관광두레와 처음사랑, 오브키친, 마이드림코스 등 4곳이다.

승촌관광두레는 생태관광 시설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승촌보를 활용해 자연거 라이더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로컬 특화 먹거리를 판매하고, 글램핑 감성제로웨이스트 셀프 BBQ장 운영과 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태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처음사랑과 마이드림코스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마을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과 식음료를 선보인다.

문화 서비스 업종인 처음사랑에서는 찬송가를 들으며 선교사 유적지를 둘러보는 음악스튜디오 투어 및 양림동에서 집필 활동을 펼친 드라마 작가들의 작품 OST와 영상을 감상하는 OST 순례길 운영, 피칸 나무 열매로 만든 식음료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으로 출발 예정인 마이드림코스에서는 관광객에게 근대대상 대역 서비스를 제공해 양림동 곳곳과 광주공원 희경루를 돌아보는 시간여행 피크닉 상품을 준비 중이다.

오브키친은 일반 음식점으로, 남구를 찾은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호두정과 및 딸기정, 된장 카야잼 등 지역 농수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판매하고, 음식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찬 기자**

'청년친화환경대상' 정책대상 서구, 전담부서·공간 운영 등

광주 서구는 '2024년 청년친화환경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친화환경대상은 청년정책과 입법, 소통 등 청년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국무사무처 소관(사)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고 있다.

서구는 청년 전담부서(일자리청년지원과)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청년센터플러스와 청년창업플랫폼 서구스타트업센터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담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PI(Personal Identity)스쿨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취·창업을 돕고 있으며, 제과·제빵분야, 조리분야 대한민국 명장들이 직접 청년 외식창업가를 육성하는 명장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정성이 기자**



'일자리 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북구, 12년 연속... 전국 유일

광주 북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일자리정책 시상식이다.

올해 일자리 대상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전반을 점검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등 2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기관으로 선정됐고 북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북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고용환경 조성을 뒷받침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 일자리 목표 1만5676개에서 1085개 초과된 1만6761개의 일자리를 창출(목표 달성률 106.9%)하고 청년·여성 고용률 등 각종 지역 일자리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북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으며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일자리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는 지역 활성화를 물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육성·지원해야 하는 정책 분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일자리 전략을 바탕으로 고용환경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서구, 한여름 밤 눈 내리는 풍암동 소통테마길

음조각 퍼포먼스, 눈 내리는 달빛음악회 등 한여름 이색체험으로 가족,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성이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 10일 오후 풍암동 소통테마길에서 '스노우 펀 파크(snow fun park)' 행사를 개최했다. 서구민들은 열

서구, 소상공인 '장사의 신'으로 양성

이달 30일까지 2기 수강생 모집 영업전략·홍보마케팅 맞춤 교육

광주 서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서구 장사의 신(神)' 양성에 나선다.

서구는 올해 하반기 '한국형 장사의 신'으로 유명한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를 초청해 제2기 장사의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기 아카데미는 9월부터 11월까지 10

회에 걸쳐 매출증대 전략 및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들의 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강의로 진행된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제1기 아카데미를 통해 '서구 장사의신' 38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아카데미를 통해 습득한 영업 노하우를 사업 현장에 적극 반영해 고객 증가 및 매출 증대, SNS리뷰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이들은 멘토단을 구성해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본인이 습득한 영업전략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멘토수당을 소상공인

후원금으로 다시 기부하는 등 골목상권 상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기 수강생은 이달 30일까지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또는 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40명을 모집하고, 서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은 일회성 지원보다 매출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강의와 양질의 교육이 소상공인들의 실제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각자의 경쟁력을 갖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사의신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이 기자**

광산구 야호센터 청소년, 지역 어르신과 '팍파티'

작물 수확 기념 소통·교류의 장

광주 광산구는 지난 9일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야호센터가 영천마을주공9단지 경로당 어르신들과 '팍파티'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호센터 청소년이 가꾸

고 있는 '야호마을 예술 텃밭'의 작물 수확을 지역 어르신과 함께 기념하는 소통,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텃밭에선 토마토, 호박, 오이, 가지, 고추 등 10여가지 작물을 수확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텃밭에서 난 건강한 식재료를 직접 만든 장아찌, 요리 등을 가

지고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호센터 관계자는 "지역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청소년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호센터는 청소년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과 호흡할 경험을 주고자 2017년부터 '야호마을 예술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